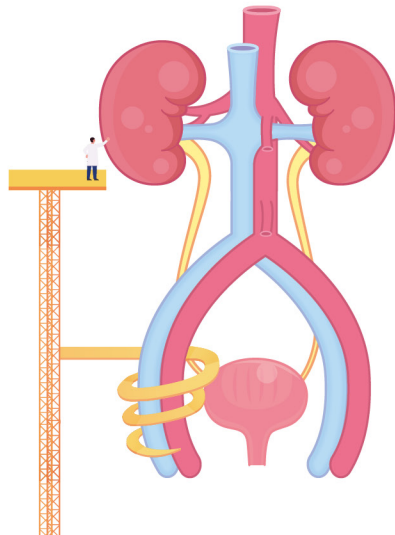




단백뇨가 있으면 무엇이 안 좋은가요?

- 일시적인 단백질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받은 소변으로 검사를 하여도 단백질뇨가 계속 있으면 콩팥병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라면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므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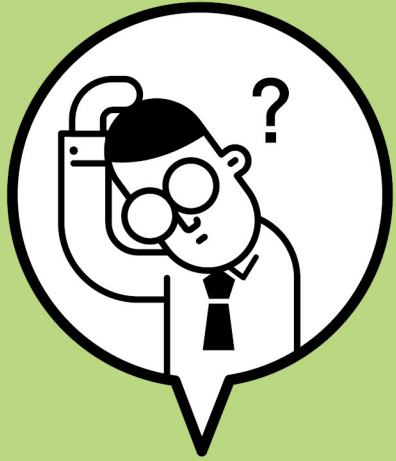
소아청소년을 위한
콩팥지킴이
KIDNEY



소아청소년 단백뇨

청소년, 보호자용





“요단백”이 있다고 합니다. 무슨 말인가요?

소변에 “단백질”이 정상보다 더 많이 섞여있는 것을 단백질뇨라고 합니다. “요단백” 검사는 간이 소변검사(요시험지붕 검사)로 소변의 단백질 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, 요단백이 1+ 이상이라면 소변의 단백질 농도가 30 mg/dL 이상인 것입니다. 그러나 단백질뇨 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덜 마셔서 소변이 많이 농축될 경우에 요단백이 1+ 이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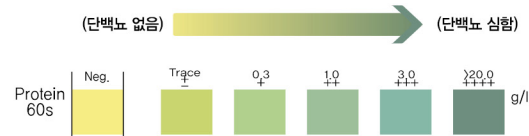


화학적 검사
요시험봉을 이용해 요당, 요단백, 요잠혈 등을 반정량적으로 검출



단백뇨는 왜 생기나요?

요시험지붕 검사 결과



● 정상 콩팥은 소변을 만들면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단백질이나 혈액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걸러냅니다. 그러나 콩팥에 병이 생기면 소변으로 단백질이나 혈액이 빠져나가 단백질뇨 또는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백질뇨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운동을 하거나 열이 나면 콩팥에 별 문제가 없어도 단백질뇨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또한, 청소년기에는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단백질뇨가 나오고, 밤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단백질뇨가 나오지 않는 “기립성 단백질뇨”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기립성 단백질뇨는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.



단백뇨가 있을 때 증상이 무엇인가요?

● 단백질뇨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. 단백질뇨가 많이 나올 때에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고,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피곤하거나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. 단백질뇨가 있으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, 특별한 이유 없이 소변 양이 줄어들거나, 혈압이 높다면 콩팥병일 수 있으므로 바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

단백뇨 증상의 예)

